

올해 모두 2,590개항을 정비 일본, 1, 890억7천만엔 투입

일본수산청은 1989년도의 어항·해안사업의 실시내용을 발표하였다.

제8차 어항정비 장기계획 2년도째의 어항예산(國費)은 통상분(通常分), NTT·B타입분을 합쳐서 모두 1,890억 7000만엔(전년비 2% 증가)이고 제4차 해안사업 5개년 계획 4년째의 어항해안예산은 43억 2000만엔(전년비 2% 증가)로서 모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정비실시항의 총수는 어항사업·해안사업합쳐 모두 2,590개항으로 이 가운데 NTT B타입분은 148개항이다.

어항사업은 5년째인 1993년을 목표연도로 총투자규모는 2조4,100억엔인데, 정비를 추진하는 제8차 어항장기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1988년 3월말의 제112회 국회에서 승인된 대상 어항수는 기간수축사업이 490개 항, 개수(改修)는 약 920개 항이다.

첫해는 수축 486개 항(이중 신규는 20개 항), 개수 882개 항(이 가운데 신규는 107개 항)을 정비한다.

국부개량사업 관련으로는 정비 실시 항 508개 항 가운데 13개 항

을 대상으로 어선과 유어선과의 이용조정을 목적으로 한 시설정비를 실시한다.

또 이 사업에 추가하여 부표등(浮標燈) 사업도 실시한다.

어업취락, 어항의 환경정비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최근 어항사업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어업취락 정비사업 가운데서 새로이 토지고도화 재편정비사업을 실시하는 외에 어항환경정비사업의 종류에 친수시설 정비사업을 신규로 마련하고 있다.

또 어항관련도로정비사업에 따라 1989년도부터 이마미(奄美)의 주요어항관련도로의 정비가 인정되었다.

한편 어항해안사업은 내년도를 목표연도로 하는 제4차 해안사업

1989년도 어항관계사업 실시액 일람

(금액단위: 천엔)

사 항	평 성 원 연 도 (平 年 元 年 度) 실 시 예 정 액								
	통 상 분			N T T 분			계		
	항수	사업비	국 비	항수	사업비	국 비	항수	사업비	국 비
어 항 수 축 사 업	434	132,966,440	88,234,000	52	39,319,000	22,434,000	486	172,285,440	110,668,000
어 항 개 수 사 업	857	76,930,430	46,525,000	25	4,907,540	2,993,000	882	81,837,970	49,518,000
어 항 국 부 개 량 사 업	500	22,296,440	11,521,000	8	1,542,182	776,000	508	23,838,622	12,297,000
어 항 공 해 방 지 대 책 사 업	1	50,000	25,000	-	-	-	1	50,000	25,000
어 업 集 落 環 境 정 비 사 업	47	5,138,000	2,579,000	13	1,442,000	721,000	60	6,580,000	3,300,000
어 항 환 경 정 비 사 업	45	2,000,000	500,000	20	1,200,000	600,000	65	2,200,000	1,100,000
어 항 관 련 도 정 비 사 업	70	5,914,134	3,214,000	-	-	-	70	5,914,134	3,214,000
해 안 보 전 시 설 정 비 사 업	445	20,087,030	10,345,200	14	1,958,580	1,047,600	459	22,045,610	11,392,800
해 안 환 경 정 비 사 업	40	3,085,370	1,032,500	16	2,919,960	975,400	56	6,005,330	2,007,900
공 유 지 조 성 호 안 등 정 비 사 업	3	198,160	79,500	-	-	-	3	198,160	79,500
재 해 복 구 사 업	-	727,654	521,000	-	-	-	-	727,654	521,000
재 해 관 련 사 업	-	4,000	2,000	-	-	-	-	4,000	2,000

(주) 어항관계예산에는 상기 사업예산의 NTT-A형사업, 조사비, 조사비 보조, 보조출차액, 작업선 정비비가 있다.

5개년계획(총사업비 1,290억엔)에 따른것.

어항구역내의 해안보전시설의 신설, 개량, 보수, 정비와 함께 환경정비, 공유지 조성 등을 실시한다.

1989년도에는 해안보전시설 정비사업관계 459해안(이중 신규가 77해안), 해안환경 정비사업관계 56해안(이 가운데 신규 11해안)의 정비를 시행한다.

또 재해복구사업으로는 사업비 7억엔(이 가운데 국비 5억엔)으로 87년도 재해복구의 완료, 88년도 재해의 90% 복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日농림수산장관에 호리노우치씨임명 중의원농림수산위원장역임

지난 6월2일 새로 발족한 일본의 宇野새 내각은 농림수산장관에 호리노우치씨(堀之内久男=衆議院·宮崎縣출신)를 임명했다.

호리노우치씨는 지난 1976년 중의원 의원에 첫당선된 이래 주로 방위·농수산쪽에서 활약했다. 올해 1월부터의 衆議院농림수산위원장직임당시에는 수산행정에 수완을 발휘했다.

또 호리노우치씨는 식품산업진흥의원연맹 상임간사, 워터프론트진흥의원연맹, 어항정비촉진의원연맹, 해안의원연맹 등 식품과 해사(海事)에 관한 의원연맹의 요직도 두루 거쳤다.

漁港내서 어선과 遊漁船사이 是非찾아 따로 碇泊港시설 收容키로

일본의 수산청어항부는 어항안의 어선과 유어선(遊漁船)과의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1987년도부터 유어선 전용의 정박지 시설을 어항의 이웃에 만드는 「어항이용 조정시설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 개소(個所)는 아직 몇 군데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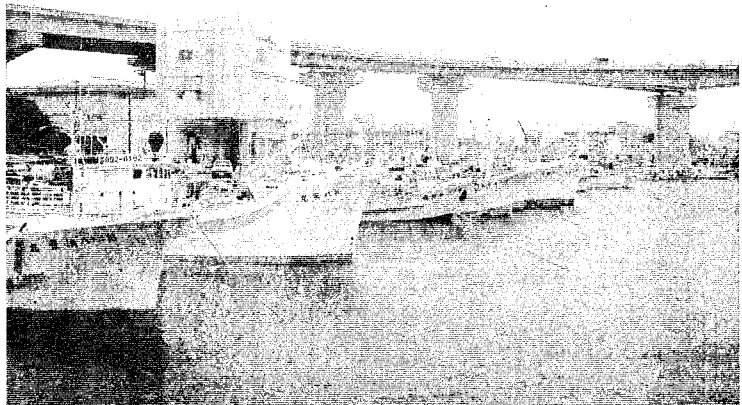
해양레저시대를 맞아 앞으로 더욱 유어선이나 요트, 마이보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을 수용하는 문제와 대응책 등이 필요해 졌는데 각 都道府縣과 市町村, 漁港協同組合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아직 확고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수산청어항부는 전국에 「어항이용시설 운영연구회」를 발족시켰다.

구체적으로는 과제에 따라 분류된 4개의 작업분회에서 검토되는데 작년말에 의원입법(議員立法)으로 성립된 「유어선업 적정화법(遊漁船業 適正化法)」가 올 가을에 실시되기 때문에 그 관련성도 고려, 필요한 문제를 검토할 것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의 유어선은 유어선에 대한 행정사항을 都道府縣知事에게 신청할 의무가 지워지게 되므로 유어선의 정박지가 특별히 없는 경우 현지의 어항내를 계선(係船)장소로 적당히 신고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어선과의 트러블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항법에 의해 어항관리자(縣·市町村)은 縣·市町村條例



와 함께 「어항관리규정」을 정해 적절할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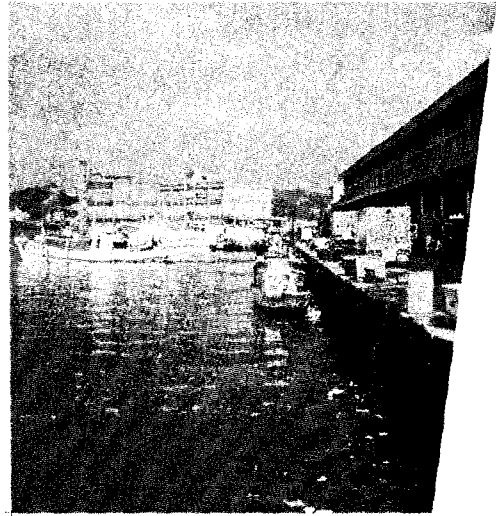
그런데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항은 어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어업자를 위한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공사업시설을 위해 「어업자만의 특권만이 아니고 그 이용에 대한 우선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어선이나 요트, 보트가 어항안에 계류하겠다는 거부할

권리는 전혀 없다.

기본적으로는 공공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무리하게 말한다면 「어업생산을 저해 당하면 곤란하므로 어선이외는 정박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올 때는 사전에 어민들의 양해를 얻어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日本전국漁港協會 제46회 定期總會 새회장으로 佐藤씨 選任...올해 새事業등 確定

일본의 사단법인 전국어항협회는 지난 5월30일 제46회 정기총회를 열고 1988년도업무보고 및 결산, 198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야노(矢野)회장은 “작년은 획기적인 제8차 어항정비계획의 출발,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40주년사 발간·어항의 노래 공모·어선 해난유자녀육성회에의 기부, 사진집 발간 작업 등)전개의 해였다.”고 말하고 “올해도 계속 어항정비시책추진에 노력하겠지만 유어선(遊漁船)의 적정화법제정에 따른 유어문제,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국제항로회의(1990년 5월 大阪 개최)준비활동이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날 하네타(羽田) 농촌수산장관(大臣)은 “200해리의 정착, 수입증대등으로 수산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하이테크놀로지

술에 의한 재배어업발전 등 밝은 면도 있으며, 8차계획 2년째를 맞아 경제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어항정비를 추진한다”고 격려했다.

13년간 재임후 임기만료로 퇴임한 矢野회장후임으로 새회장이 된 사토(佐藤)전부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 여러분과 관계자 모두의 협력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矢野전회장은 고문으로 취임했다.

이어 열린 리셉션에서는 자민당 수산부장, 수산청장, 국토청장 및 다수 국회의원들이 어항정비추진을 위해 더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전회장을 위로하고 새 회장을 격려했다.

올해 일본어항협회의 사업계획은 ①제8차 어항정비 장기계획 ②어항 환경, 정비사업 ③제4차 해안사업 5개년(86년도부터)계획등

의 추진에 중점을 두면서 다음사업을 수행한다.

▲제41회 전국어항대회(靜岡市·10월26일)개최와 결의사항추진 및 진정(陳情)

▲제17회 전국해안사업 추진대회(동경·12월) 공동개최와 결의 진정

▲1990년도 어항관계 예산대책 운동과 어항관계 세제(稅制)개정 운동

▲어항·어촌, 해안관계 조사연구와 검진실시

▲수산청위탁사업 계속 실시

▲제27회 국제항로회의에의 협력

▲발전도상국에의 국제기술협력

▲어항에 관한 홍보활동추진

▲어항 환경 미화를 위한 계몽

▲88년도 어항공적자표창

▲기관지, 월보 발행, 도서 출판, 어항포지 등 알선 판매

재단법인 ‘沿岸레저센터’ 設立 石原 회장, 안전성 확보에 최선다짐

재단법인 연안레저센터(회장 石原俊=日産자동차회장)가 지난달 도쿄에서 설립 피로 파티를 열었다.

운수성(交通部), 해상보안청관계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시하라(石原)회장은 레저센터의 취지, 설립경위를 말한뒤 「앞으로 레저센터를 통해서 연안레저활동의 급속한 신장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일본의 연안레저의 발전과 함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고 다짐하고 “나도 연안레저 발전에 도움을 주고싶다”고 말했다.

이어 카메이(龜井) 운수성 정무차관이 센터설립에 대해 “연안레저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며 건전한 발전을 원하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포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遊漁船協會 발기인회 池尻 전어련회장, 會長에

일본유어선업법(유어선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의 큰 기둥이 되어 있는 전국유어선업협회 설립발기인회가 지난달 도쿄의 전어련회의실에서 열려 발기인 대표에 이케지리(池尻) 전어련 회장과 전국낚시배조합연합회 회장이 맡았다.

漁網分解개발시험 通産省에서도나서

명칭을 전국유어선업협회(全國遊漁船業協會)로 정하고 정회원, 찬조회원으로 나누어 회원가입을 권유하기로 했으며 사무국은 도쿄의 히라가마치에 두기로 했다.

미생물에 의해 分解되는 플라스틱(바이오 플라스틱)을 어망이나 낚시줄 등의 소재로 응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시험을 일본 수산청이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한데 이어 일본의 통산성(상공부)도 올해부터 이 신소재(新素材)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올해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물건조사(物件調査)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내년부터 생산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다.

플라스틱은 천연소재에 없는 강도, 성형성(成型性) 등을 가지기 때문에 각종 그릇이나 비닐주머니 등 일용품이나 어업관계에서는 어망, 낚시줄, 부이 등 폭넓게 이용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분해성이 없기 때문에 바다 특히 항만에 버려졌을 경우 항만을 오염시키고 어장을 황폐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조(海鳥)나 물개

와 물고기들의 폐사까지 일으키게 되어 플라스틱공해는 심각한 국제문제화 하고 있다.

일본 통산성(通産省)은 플라스틱폐기물이 끼치는 환경오염이 전세계적으로 심각하다고 보고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바이오 플라스틱개발에 나선 것이다.

올해의 스케줄은 ①전문가들에 의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개발가능성 기본조사 ②아미노산, 당 등 미생물의 대사물질을 소재로 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개발 가능성 및 물건조사 ③미생물을 활용해서 생산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개발 가능성 ④현상의 기술적 문제점과 앞으로의 연구개발과제 검토 등인데 초년도 예산은 1,400만엔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일반업계에서도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가능성 조사를 위해 이미 지난 4월 해외 조사단에 파견한 바 있다.

일본의 14개기업의 연구관계자가 미국, 영국, 이탈리아, 벨지움 등을 방문하고 미국에서 열린 「생분해성 플라스틱 심포지움」에도 참가하는 한편 정부관계기관, 대학, 민간기업과 연구교류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통산성은 이들 보고를 기초로 연구개발을 계속하면 3~4년후에는 실용화가 기대된다고 한다.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스티렌 등의 합성플라스틱은 현재 전 세계에서 연간 약 1억톤이 생산되는데 일본은 그중 약 12%나 생산하고 있다.